



대평동 마을회 이영완 회장은 “사업단과 함께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고자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편한 마음으로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이승욱 예술감독은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해 강강이에술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히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평동에 문화사랑방이 열렸네

대평동 경로당에서는 지난 8월부터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이하 사업단)과 대평동 마을회의 주최로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사랑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랑방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처럼,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대평동 경로당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듣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산 곳곳에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건축사무소 소장, 화물선 선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고, 주민들 또한 직접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풍성한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평동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사랑방은 대평동 경로당에서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립니다. 앞으로 문화사랑방이 대평동 마을분들 스스로 지켜가고 싶은 소중한 마을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송교성 사무국장

마을에 단비가 되어 준 문화사랑방

마을의 큰 어른과 마주앉아

지금의 대평동을 있게 한 선인들의 노력 깨달아
 소원해진 이웃 간의 정(情) 확인하는 자리

지난 9월 7일 수요일 문화사랑방에서는 이집운 노인회장님(94)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집운 노인회장님은 대평동 동장까지 하신 바 있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1980~90년대 주로 활동하셨던 노인회장님께

서 당시 대평동의 모습과 마을회가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 해주신 이야기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에 남는 이야기는 “대평동 마을회가 이만큼 자리 잡게 된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좋은 뜻을 가진 이들이 합심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집운 노인회장님이 그 일을 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현 대평동 마을회관 사무실에는 見利思義(견리사의)*라는 족자가 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운영위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항상 보며 기억할 수 있게 직접 써주신 글입니다.

*見利思義(견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든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라

이집운 노인회장님의 선비정신 만큼이나 본받고 싶은 것은 살아가시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모님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평동 마을 주민들께서도 문화사랑방에 오셔서 이웃 간에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대평동 안에서 하나라는 점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 편집위원





기획 3부작 ‘수리조선 이야기’

1부. 선박, 새 옷을 입다
제 2부. 선박의 심장, 엔진 수리
3부. 선박의 출항 준비

선박에서 엔진은 사람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고장 나면 배는 그 자리에 멈춰버리죠. 대평동은 70~90년대 사이에 선박 수리료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선들의 기관 수리를 도맡아 하던 ‘선박공업사(철공소)’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일본의 디젤 엔진(저속 엔진)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선마다 엔진의 모양도, 엔진에 사용하는 부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품이 고장 나면 그때 마다 일본에서 공수해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면서 대평동의 기관 수리 기술자들은 엔진도 부품도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배가 없다”는 대평동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1970~80년대 대평동의 선박공업사를 찾는 배들은 주로 100톤급 어선이었습니다. 일단 배의 엔진이 고장 나면 해당 선박 회사의 선박과장이나 기관과장이 선박공업사로 연락을 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멈춰버릴 경우, 해당 회사의 다른 배가 고장 난 배를 대평동 해안까지 끌고 옵니다. 선창가에 배를 대 놓으면 선박공업사의 수리 기술자들이 직접 배에 올라가 엔진을 분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엔진을 떼 가지고 공장에 가서 수리합니다. 선박의 엔진은 굉장히 큽니다. 어선의 엔진은 대부분 6기통인데, 1기통이 자동차 엔진 무게만 하다고 합니다. 엔진 전체를 다 가져갈 경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크레인이 있지만 예전에는 모두 사람 힘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엔진을 옮기는 일만해도 엄청난 힘과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어선들은 추석 대목을 본다는 9월 조업을 나가기 전인 6월에서 8월동안 선박공업사에 엔진 등 기관 수리를 맡깁니다. 점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윤활유나 냉각수 보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펌프 같은 게 절단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박공업사에서는 어선마다 3년에 한번 씩 엔진의 주요 부품을 갈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주로 라이너, 피스톤, 터빈(시원한 공기를 피스톤 안에 넣어주는 장치), 냉각수 펌프(냉각수를 공급해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장치), 오일 펌프(윤활유를 배급해 엔진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 등을 갈아줍니다. 이런 것들만 미리 잘 갈아줘도 엔진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대평동에서 기관 수리를 하는 선박 공업사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형태가 제각각인 엔진 부품들을 직접 제작해서 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박공업사에서는 실린더며 라이너 같은 부품들을 직접 제작해서 교체해주었습니다. 선박공업사의 기술자들은 아주 미세한 부품까지 일일이 기계로 깎아서 원래 엔진에 달려있던 모양으로 만들어 냅니다.

한창 수리 작업을 하는 6월에서 8월 외에는 다음 수리에 사용할 부품을 미리 주문받아 만들어 놓는 일을 했습니다. 선박공업사마다 자신들이 수리해준 배에 어떤 엔진이 달려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수리할 때 쓸 피스톤, 핫토키바(엔진 덮개), 라이너, 실린더 등을 미리 주문로 만들어 놓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엔진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성스럽게 수리해 주는 곳이 전국에서 대평동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선박공업사들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그 많던 선박 공업사는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몇몇 곳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바라다 보이는 대평동 해안로 부근에 자리 잡고 있던 대평선박공업사는 대평동에서도 규모가 크고 건설한 기관 수리 공장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이곳의 운영자였던 이정태 사장(80)은 1972년부터 근 40년간 공업사를 운영해 왔지만 2000년에 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선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나온 어선들은 엔진이 규격화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엔진이 고장 나면 엔진을 통째로 새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부품도 대량 생산되어 구입하면 얼마든지 새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정태 회장은 “더 이상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업사는 사라지고 부품 장사만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해도 대평동에는 여전히 작은 부품까지 손으로 만들고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엔진으로 움직이는 어선이 남아있는 한, 그들의 손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70~80년대 대평동 수리 조선업의 전성기를 이끈 기술자들의 삶이 많이 잊혀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기술 개발로 대한민국 선박 수리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들의 삶과 노력이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자문-이정태(옛 대평선박공업사 사장)
이일생(젊은 시절 선박과장 경험, 선단 선주)



“집에서는 아야아야 해도
깡깡이를 나갈 때는
멀정정하게 나가고
그래 살아났다”



깡깡이 아지매
허재혜 어르신

1970~80년대 조선업과 배를 고치는 수리조선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대평동. 그 눈부신 발전을 이끈 이들 중에는 배에서 청탁 작업(녹제거)을 담당했던 깡깡이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동안 깡깡이 아지매의 삶은 가난했던 옛 시절의 이야기쯤으로 여겨지며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산업화의 주역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깡깡이일을 했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허재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자그마치 38년간 깡깡이일을 하셨다는 허재혜 어르신은 뛰어난 작업 수완과 지혜로 작업 반장까지 맡으셨다고 합니다. 허재혜 어머님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깡깡이 아지매들의 일상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어르신!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허재혜입니다. 39년생이니깐 벌써 80살이네요. 깡깡이는 1975년에 시작해 2013년도에 퇴직했으니깐.. 38년을 했습니다. 75년에 깡깡이를 하려고 대평동에서 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Q 38년이면 인생의 반을 깡깡이와 함께 해 오신 거네요. 어떻게 깡깡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애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먹고 살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그런데 사돈이 내 사정을 알고 여자들이 벌어먹고 살기 좋더라 대평동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사돈이 대평동 동네 반장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한 달음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진짜 여자들도 깡깡이로 자기 돈벌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Q 일하시면서 아이들 셋까지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며 아이들 학비며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깡깡이 일은 벌이가 괜찮았나요?

1975년에 처음 와서 일할 때 하루 일당이 600원이었습니다. (1970년에 22kg짜리 밀가루 1포대는 773원 정도) 일용직이라 일당으로 받았습다. 한창때 일당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6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게 많든지 적든지 잘 몰랐습니다. 번만큼 알뜰하게 살고 아쉬우면 잔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대평동에 올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큰 애가 잘 자라서 지금은 51살입니다.

Q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깡깡이 일은 대개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쳤습니다. 잔업이 있어 밤 11시까지 한 적도 많았습니다. 잔업을 하면 돈을 좀 더 얻어줬거든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하면 10시에 10분정도 쉬고, 점심 먹고 1시부터 일하다가 3시가 되면 또 10분 쉬다가 5시까지 일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Q 깡깡이하면 망치로 두드리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깡깡이 작업은 몇 명에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는 배 한 척이 들어왔다 하면 한 30명이 붙어야 했습니다. 나무판에다 줄을 맨 걸 ‘아시바(또는 족장)’라고 하는데, 배에 아시바를 매달아 거기 앉거나 서서 깡깡이질을 합니다. 아시바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줄을 당겨주는 사람 둘, 밑에서 줄을 조정해주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갑바(방수용 옷)’를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망치를 들고 깡깡깡합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고생을 이루 다 말 못합니다.

Q 깡깡이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큰 배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아시바’가 출렁출렁합니다. 처음엔 다리가 떨려서 힘을 너무 주다보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또 함마로 치는 깡깡 소리 때문에 귀가 영망이 되죠. 기관지도 안 좋고요. 옛날에는 보호 안경 같은 게 없어서 먼지를 그대로 뒤집어쓰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씻고 안약을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다 합니다.

Q 그렇게나 힘든 일을 38년간이나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그때는 내가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막내 딸이 초등학교 때 적은 일기를 보고 많이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나가는 엄마를 보고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가 봐요. 착한 우리 아이들을 보며 더 힘을 냈습니다. 깡깡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정말 다 고생했습니다.

Q 지난 2013년에 38년간 해온 깡깡이일은 그만두셨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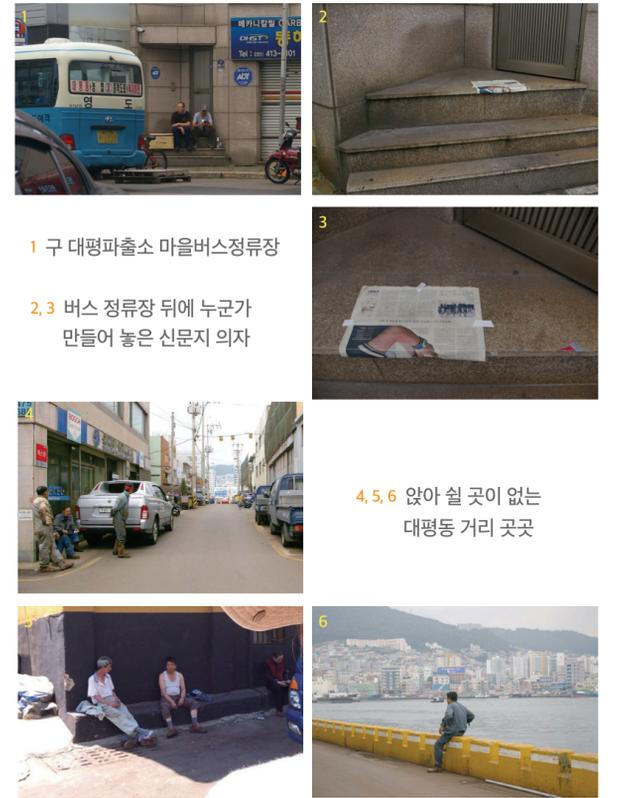
아직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고 스스로 돈벌이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가 우리 아이들 셋이 “아이고 만세! 울 엄마 만세! 아이고 이런 날이 다 왔네!” 그러더라고요.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식들 걱정시키는 것 같아 일을 안 합니다. 예전에 일했던 조선소의 사장님을 길에서 만나면 지금도 나더러 그때 일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내가 참 잘 살아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고 엄마 깡깡이 징그럽도 안 하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깡깡이가 왜 징그럽노 우리 생명을 이어준건데, 왜 징그럽노 고맙지”



2. 대평동에는 벤치가 부족해

대평동에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벤치일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길 자체의 폭이 좁고, 주택과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보니 벤치 같은 휴식시설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평동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은 바로 마을버스인데요. 대평동 내에는 총 9군데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평동 곳곳에선 바닥에 앉아있는 주민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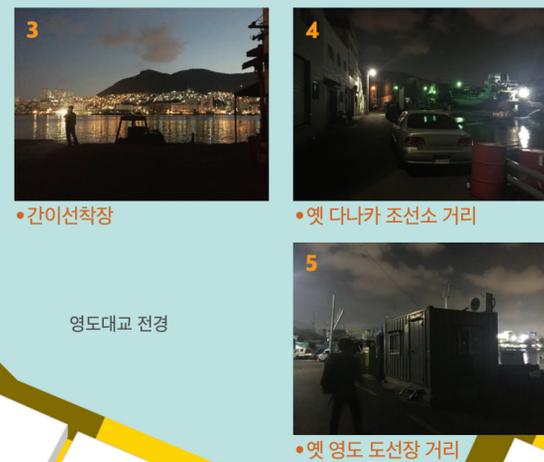


1 구 대평파출소 마을버스정류장

2,3 버스 정류장 뒤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신문지 의자

4,5,6 앉아 쉴 곳이 없는 대평동 거리 곳곳

깡강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예술 작업과 결합된 가로등과 벤치를 가장 필요한 몇몇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어두웠던 대평동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그맣게나마 주민 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에는 설치 구역을 점차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문화사랑방 시즌 1이 끝나더라도 시즌 2, 3을 열어 주민 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마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이선착장

4 옛 다나카 조선소 거리

5 옛 영도 도선장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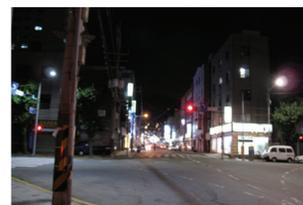
1 대평시장 골목



2 이북마을



▲ 대평로(대평동 큰 도로)



▲ 남향로(남향동 큰 도로)

그밖에... "대평동에는 ○○이 필요해"



약국



병원



파출소



자전거 도로



은행



편의점



마을에서 알립니다.

남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민)가 제15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깡강이예술마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10.27(목)~10.3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평동에 필요한 두 가지

지난 8월 17일부터 5회째 이어져 온 문화사랑방에서는 대평동 주민 분들과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마을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만사대평」 창간호에서 집중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평동은 매일 밤 어둠이 무서워요

대평동 주민 분들 중에는 유독 밤이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어두운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평동의 밤은 다른 마을보다 유독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대평동 1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할머니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봤는데 밖이 너무 어두워서 확인이고 뭐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구 대평파출소가 있었던 로터리 부근에 거주 하고 있는 한 주민 분은 “밤이 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밖에 나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경 대평동을 찾아 가봤습니다. 남향시장 앞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가 대평동까지 뻗어있는데 남향서로를 중심으로 우측은 대평로, 좌측은 남향로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양쪽을 비교해보니 대평동 도로가 매우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평동은 타 지역에 비해 주택보다 공장이나 점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은 저녁이 되면 일하는 분들이 불을 끄고 마을을 빠져나가기에 사람도 없고 빛도 없는 빈 집이 돼 버립니다. 그런 곳이 200여 곳이나 되다보니 밤이 되면 더욱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주민 분들은 마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확인해보니 대평동에는 약 백여 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간의 간격이 멀고 전구의 밝기가 약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은 골목길입니다. 대평동은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마을입니다. 보안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은 이북동네와 물양장 두 곳, 옛 도선장이 있던 해안길, 대평로 34번, 45번, 46번길 등이었습니다. 이북동네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가 많은 곳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평동 곳곳에 조명을 더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평동을 음미하며 걷다보면 보이는 것들

조선소길

3. 마을 곳곳이 박물관이다!

대평동에는 쇠사슬, 기어, 스크류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거대한 선박 부품들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모두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박의 속내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또 있을까요? 마을 곳곳에 주차된 자동차들은 대부분 커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도장 작업중 주차시 커버 하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구나!" 대평동 깡깡이마을은 해설사가 필요 없는 친절할 마을 박물관입니다.



4. 쌍화차 한 잔, 시간을 멈춰라

오늘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익숙해지면서 다방은 낯설고 희귀한 장소가 되었는데, 대평동엔 그 옛날 선원들과 조선소 근로자들의 친근한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였다는 '양다방'이 있습니다. 이곳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 여기서 가장 맛있다는 쌍화차 한잔을 시켰습니다. 문 밖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과 환없는 여유를 만끽 할 수 있습니다.



해안길



1.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비밀 공간

대동대교맨션에서 출발한 여정은 시간여행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1970년대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선박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윽고 길과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로가 나옵니다. 대평동 해안로에서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뽕 뚫린 바다와 부산의 랜드마크 영도대교, 자갈치 시장은 반드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숨겨진 한 곳입니다.

해안길



영도대교를 건너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출항하는 배들이 보입니다. 그 뒤로 거대한 크레인 한척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저기는 어디지?' 타지에서 대학생생활, 부산의 이곳저곳을 다녀봐 음에도 거대한 크레인 선박들이 압도하는 그곳만은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구역처럼 느껴져 유독 눈에만 담아 두었습니다. 최근 이곳에 예술의 바람이 분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이젠 찾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대평동, 그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김수영 객원기자
(한국해양대 4)



2.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싹튼 자리

세월이 느껴지는 담벼락을 따라 걷다보면 수리조선소 한 곳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곳에 1887년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목선 조선소인 '다나가 조선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대평동(당시 대평포)에는 크고 작은 조선소가 60여개 정도 들어서며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10여 곳의 수리조선소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평동 해안가를 따라 걷다보면 항구도시 부산의 진면목을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포토에세이



조급한 나무들이 푸른 이파리들을
벌써부터 털어내고
하늘은 땅으로부터 한 뼘이라도
더 멀어지려 애쓰는 계절
꾸덕꾸덕 말라가기만 하던 삶들이 모여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가며
흐물흐물 풀어져버리는 포근한 시간

글 장현정
사진 김선영



START
영도대교

대평동을 기록한 10만개의 활자

본 기사는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인터뷰 당시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습니다.

대평동 1가 강장수(74)

1965년 대평동에 선일인쇄소를 열었다. 우리 집이 영도구에 최초로 생긴 1호 인쇄소였어. 본격적으로 인쇄일을 시작한 건 67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활자를 모았어. 지금이야 컴퓨터로 작업해서 뽑아내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일일이 활자를 꺼내 손으로 순서를 맞춰서, 기계에 걸어야 인쇄가 되던 시절이었지. 팔만대장경처럼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이렇게 한자 한자 뽑아서 글자를 맞춰서 나중에 찍어내는 건데. 글자를 뽑는 걸 문선이라고 해. 명함 같은 건 문선하는 데만 30분이 걸려. 활자마다 글꼴 모양이나 글자 크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것도 맞춰야 하고, 미세하게 높이가 다른 활자들은 높이도 맞춰줘야 해.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활자를 가지고 50년 넘게 작업하다 보니 나만의 기술과 요령이 생긴 거지.

한창 인쇄일이 많을 때는 활자가 100케이스 정도까지 있었어. 한 케이스 안에는 가나다라 등등 활자가 1천 개 정도 들어가 있지. 100 케이스까지 있었으니까 조그만 활자가 10만 개 정도 있었다는 거지. 한 케이스에 당시 돈으로 30~50만 원 정도 했어. 비싸서 한 번에 들이지 못하고 하나하나 사서 모았어.

60년대에는 범일동에 있는 시장이나 국제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장기(계산서)를 만들어서 팔다가 73년도에 내가 대평동 통장일을 하면서부터는 대평동 일만 했어. 철공소를 다니면



서 거기서 필요한 인쇄물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지. 내가 만들던 건 13가지 정도였어. 거래 명세서, 임금대장, 월급봉투, 인수증,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세무보고서 이런 것들이었지. 대평동에서 쓰는 모든 인쇄물은 다 우리 집에서 했어. 공장에서 쓰는 서류 말고도 대평동 마을회에서 쓰는 서류들, 예를 들면 '동민의 상' 상장이나 동민체육대회 안내장 같은 것도 만들었어. 대평동의 역사는 우리 집 활자를 통해 쓰여 졌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니지.

내가 처음부터 인쇄일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42년생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졌어. 그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살기 어려웠지. 지금 진영목형 자리가 배급소였어. 거기 가서 밀가루와 쌀을 배급받아 왔지. 또 그때 대평동에는 생선 통조림 공장이 두 군데 있었는데, 통조림을 만들고 남은 고등어 머리를 1개에

10원에 팔았어. 그런 걸 사다 먹었던 말이야.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웠지. 나는 중학생 때부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남의 집 애들 가정교사 노릇까지 했지만 결국 학비가 부족해서 대학에 갈 수 없었지. 먹고 살길을 찾다가 손재주가 좋아서 인쇄 일을 시작하게 됐어.

인쇄일은 그때만 해도 정식 직업이 아니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 보니 벌써 50년이 흘렀네. 요새는 인쇄물을 거의 제작하지 않아.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서 활자로 인쇄하는 건 인건비나 수공비도 나오질 않거든. 이 활자로 인쇄물을 만들어 아이 3명 다 공부시키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인쇄소 문을 열어두면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르기도 하거든. 그분들 말만 되어 드리는 게 내 낙이라면 낙이야.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나한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활자 밖에 없는 것 같아. 땀 흘려서 한 자 두 자 사서 모은 건데 마지막까지 허투루 대하고 싶진 않아. 세상은 놀라게 변했지만 나한테 변하지 않은 건 이 활자뿐이야. 내 인생이 담긴 이 활자를 앞으로도 잘 간직하고 싶어.



보통의 정점을 찍는 그곳, '경북식당'

경북식당·부산시 영도구 대평동로 30(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이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조선소와 공업사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사이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소와 공업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그 중 '경북식당'이라는 곳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곳에는 정식을 기본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루치기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웬만한 요리 내공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아 맛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경지라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정식은 정성스런 기본 반찬들이 큰 만족감을 주는 곳입니다. 고슬고슬한 밥과 함께 나오는 아들아들한 생선구이가 일품이며, 두루치기는 매콤한 맛과 부드러운 육질이 입맛을 돋웁니다.

정성이 가득하지만 부담은 없는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찾을만한 곳,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미소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이곳에서 점심 한 끼 드셔보세요.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이혜미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강강이예술마을 문화사랑방 운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민 분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한 문화사랑방이 이제 단 3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 19일, 26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대평동 경로당에서 문화사랑방이 열립니다. 끝까지 열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강이예술마을 문화사랑방 시즌-1 일정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대평동 경로당

날짜	제목	강연자
8차 10월 12일	강강이, 신화로 다시 태어나다	김두진 (영도문화원)
9차 10월 19일	매일을 예술로 만드는 방법	김정주 (가치예술협동조합)
10차 10월 26일	문화사랑방 시즌-2를 준비하며	사업단

*세부내용과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강이예술마을 브랜드 디자인

지난 6월 확정한 마을 슬로건과 브랜드 명칭인 "근대 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강강이예술마을"을 기반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 중입니다. 대평동에서 나오는 모든 인쇄물, 기념품 등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강강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제1회 물양장살롱 - 강강이 길놀이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평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현대판 新지신밧기 공연인 '벽사유희'를 중심으로 마을 거리투어, 먹거리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물양장살롱이, 9월 30일 영도구 대동대교맨션 앞 물양장 일원과 대평동 마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물양장살롱은 대평동 물양장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모임터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담은 축제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양장살롱

제1회 강강이길놀이

2016.9.30(금) 오후4시
대평동 마을시장 사거리 및 대평동 일대

'물양장살롱'은
항구도시 부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평동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문화예술로 만나고 교류하는 마을축제입니다.

15:00~16:00 사전프로그램/거리투어 '강강이길 둘러보기'
(대동대교맨션앞 물양장/사전신청 : 418-1863)

16:00~17:30 벽사유희(壁邪遊戯) '강강이길 기원하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수영지신밧기 재창조 프로젝트]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평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현대판 新지신밧기 공연
(대동대교맨션앞 물양장 ▶ 마을버스중점 로터리 ▶ 수리조선길 ▶ 대평동 마을시장 사거리)

17:30~19:00 먹거리나눔 '강강이길 어울리기'
(대평동 마을시장 일대)

부산광역시 | 영도구 | 대평동마을회 | 영도문화원 | 문화재단/예술공동체/창작 creative plan b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강강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ydart2016@hanmail.net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생활지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축하, 돌기념, 고회기념, 업체광고 등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